

사무엘하 12.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신 하나님 (삼하 12 장 1-31 절)

들어가기

본 장에서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한 후, 이 일을 덮기 위해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든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은 즉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에 대한 응답과 화해의 표시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심 사상은 ‘다윗’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용서받기 힘든 큰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1-6 절)

- 주목 1.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먼저 찾으셨다는 것!
 - ✧ 우리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음을 잊지 말자!
 - ✧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 죄 중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1) 선지자 ‘나단’은 어떻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나요? (1-4 절)

- ✧ 지혜로운 비유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의 죄를 지적!
 - ‘나단’의 비유 = 부자가 가난한 자의 새끼 양양을 매우 불의하게 취하였다는 것!
 - ‘나단’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결코 원수같이 또는 범죄자처럼 ‘다윗’을 대하여 그의 죄 지적하지 않고 지혜로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형제처럼 권면했다는 것!
- 생각하기: 남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의 평소 자세는 어떠한가?
 - ✧ 우리도 불의한 일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그 방식은 결코 악의에서가 아닌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말자~

2) ‘나단’의 비유를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5-6 절)

- ✧ 우선 크게 ‘노했다’ -> 얼마나?
 -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판결!
 - 또한 그가 취한 양에 대해서 네 배로 값아 주어야 할 것! = (율법에 따른 것, 출 22:1)
- ✧ 그러나 이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그저 이웃의 범죄에 분노했음!
- ✧ 우리는 항상 이웃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삶의 위치를 점검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2. 선지자 ‘나단’은 불의한 부자 이야기로 분노한 ‘다윗’에게 그 사람이 ‘다윗’이라며 ‘다윗’이 죄악을 깨닫도록 지적해 주었습니다. (7-12 절)

1) ‘나단’이 지적한 ‘다윗’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7-9 절)

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밧세바’를 취했다는 것! (7-8 절)

- 참고: 8 절,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 누구를 가리킨 것일까?

②. ‘우리아’를 죽인 후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었다는 것! (9 절)

☆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끊임없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2)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나요? (10-12 절)

①.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

-> 이는 ‘다윗’의 살인죄에 대한 징계로 ‘다윗’의 당대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전쟁과 살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

(예: ‘압살롬’이 그의 형제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임)

②. ‘다윗’의 아내들이 대낮에 이스라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당하게 될 것!

-> 은밀한 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징계하심.

-> 이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함으로 이루어짐

☆ 우리가 심는 죄의 씨앗들 특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섭게 다시 열매 맺어 내게 돌아올지를 미리 깨닫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자!

3. ‘나단’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하며 회개하였습니다. (13-15 절)

1) ‘다윗’의 회개가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는 이유?

①. ‘다윗’은 아무런 변명도 핑계도 대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

②. 이런 ‘다윗’의 회개에 ‘나단’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고 선언!

☆ 회개는 언제나 신속하고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용서도 신속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이 됩시다.

-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에 자세를 가졌다는 것!

2)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내리셨습니다. (14 절)

- 생각하기: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 과연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사는 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 참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성도의 자세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 장 7-11 절)

4. ‘다윗’은 자신의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16-23 절)

- 1) ‘다윗’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 이런 ‘다윗’의 기도는 아이가 병에 든 날부터 운명할 때까지 7일간 계속되었음.

✧ 이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고 한 기도였음.

- ‘22 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 2) 이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8-20 절)

✧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음.

✧ ‘다윗’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슬픔과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었음.

- 3)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이런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질문: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 답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을까 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가 죽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함.

✧ 한 신학자의 코멘트

-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한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5. ‘다윗’은 죽은 아이로 슬퍼하는 ‘밋세바’를 위로하였습니다. (24-25 절)

- 1)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과 ‘밋세바’에게 주시며 저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 ‘솔로몬’=‘평화스럽다’는 뜻. 곧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화평을 체결해 주셨다는 의미!!

- 2)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여 주셨고, ‘나단’을 통해 이름을 ‘여디디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 ‘여디디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

❖ **참고: ‘솔로몬’의 출생에 대한 신학적 논쟁 -> 그는 ‘다윗’과 ‘밧세바’의 둘째 아이(아들)인가?**

☆ 역대상 3장 5절의 ‘다윗’의 족보 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 곧 이 본문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아이를 포함해서 따져보면, 솔로몬은 다섯 번째 아들이 된다는 것!

- 성경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
 - ①. 역대상 저자의 기록상 오류.. (나열이 잘못된 듯..)
 - ②. 역대상 기록은 맞고, 사무엘하에서 굳이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은 것일 뿐!
-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2번을 지지..
 - ☆ 사무엘서/열왕기서 = 선지서로 이해 But 역대서는 역사서로 이해
 - ☆ 사무엘서는 사무엘->사울->다윗->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 핵심!
 - 따라서 솔로몬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음!
- 그럼 여기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은혜들..
 - ①. 본문에 등장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첫 아이의 나이는 아마도 최소 7세로 추정
 - ②. 곧 7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
 - ③. 그러나 ‘다윗’이 3명의 아들을 더 낳으며 회개하지 않자 친히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
 - ④. 그 동안 암몬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다는 것! (이 부분은 아직까지 논란)
 - ⑤. ‘다윗’의 회개로 하나님은 첫째를 대려 가시고, 대신 ‘솔로몬’을 화해의 징표로 주시고, 암몬과의 전쟁도 완벽하게 승리하게 역사하셨음.

6.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 ‘요압’은 친히 ‘다윗’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1) ‘요압’은 지혜롭고 충성심이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 ☆ 28절,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 2)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정복한 ‘다윗’은 암몬 왕의 면류관을 차지하였습니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